

票를 根源聲符로 한 同源字 考釋

韓延錫*

<목 차>

1. 序論
2. 票의 字源과 同源字
 - 2.1. 票의 字源과 字形變化
 - 2.2. 票를 根源聲符로 한 同源字
3. 結語

1. 序論

한자는 언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漢語의 書寫符號이고, 그가 보유한 음과 의는 漢語로부터 온 것이며, 그 形은 언어에 부가한 일종의 標志이다. 성음에 대한 자각은 宋代 右文說로부터 시작하여 清代 黃承吉은 “형성자의 오른쪽 聲旁은 반드시 義도 겸하고 있으니 義는 모두 소리로부터 얻어 진다”¹⁾라고 하고, 段玉裁는 “성인이 글자를 만드심에 어떤 개념이 있는 연후에 거기에音を 붙여 썼고, 音이 있는 연후에 形체를 만들었다.....그렇기 때문에 음을 통해 의미를 고구해야 된다.”²⁾라고 하였으며, 劉師培는 “옛날 文字가 없었을 때 먼저 말이

* 연수여자고등학교 교사

1) 黃承吉, 《夢陔文集》(10卷), 卷二, <辨解說 字義起於右旁之聲說>: 諧聲之字, 其右旁之聲必兼有義, 義皆起于聲.(民國二十八年燕京大學圖書館拜行, 鹽城孫氏借得道光二十三年刻本)

2) 段玉裁, 「廣雅疏證·序」: 聖人之制字, 有義而後有音, 有音而後有形....因音以得其義.(王念孫, 《廣雅疏證》, 中華書局, 1983)

있었다.(古無文字先有語言)³⁾라고 하여 한어문자학 연구에 聲韻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자의 字音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근세 沈兼士, 章炳麟 黃侃 등에 의해 詞源 연구로 승화되었고, 현대의 王力の 《同源字典》에서 집대성되었다.

漢語에서 '同源字(詞)'란 동일한 字(詞)源으로부터 파생되어 音과 義 두 방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字(詞)를 가리킨다. 讀音上 서로 같거나 혹은 流轉관계를 맺고 있고 意義上 서로 같거나 혹은 引申관계를 맺고 있는 한 무리의 詞族을 가리킨다.⁴⁾ 王力은 同源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음과 의가 모두 가깝고, 음은 가깝고, 의가 같거나 혹은 의가 가깝고 음이 같은 글자를 同源字라고 한다. 이들 글자는 모두 동일한 來源을 갖고 있다. 同源字는 항상 어떤 한 개념을 중심으로 어음의 미세한 차별로(혹은 同音) 서로 가깝거나 서로 관련된 몇 개의 개념을 나타낸다.(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的字, 叫做同源字. 這些字都有同一來源...同源字. 常常是以某一概念爲中心, 而以語音的細微差別(或同音), 表示相近或相關的幾個概念.)⁵⁾

즉 한자의 형체와 상관없이 음과 의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글자는 동일한 來源, 語源을 갖고 있고, 이를 同源字라고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痛, 慟, 痲, 恫, 懂, 疼, 懂은 相同 혹은 相近한 字音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分, 半, 判, 片, 別, 辨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의 물건이 둘로 나뉘는 나타내는데 이들은 실은 동일한 來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⁶⁾ 동일한 源詞로부터 붙여난 글자를 同源字라고 하고, 동원자 여부는 音近義通이 주요한 준거가 되며⁷⁾ 기본적으로는 형체와 관계가 없다.⁸⁾ 하지만 문자의 분화가 孳乳와 變易을⁹⁾

3) 劉師培, 《左龔集》(8卷), 第四卷, <字義起於字音說 上>(劉師培, 戊辰三月, 銅山 張伯英署, 北京 隆福寺 脩綆堂藏板)

4)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6, 13쪽 참조.

5) 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3쪽.

6) 王力, 같은 책, 33쪽, 39쪽 참조.

7) 王寧, 《訓詁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51쪽 참조.

8) 동원자는 독체와 합체를, 회의와 형성을 가리지 않는다. 왕력의 《同源字典》에 系聯된 동원자 역시 그렇다.

9) 예컨대 眉에서 湄, 正에서 政처럼 源詞를 기록하던 字로부터 새로운 모양을 분화시켜 新字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실제로는 동원자 사이에는 형체상 관계가 있기도 하다.

王力の 《同源字典》은 기본적으로 위의 分, 半, 判, 片, 別, 辨처럼 聲旁의 同一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詞族을 한데 모아 系聯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동원자 연구의 기본 틀이었는데, 최근 同聲符의 형성자만을 系聯하는 同源字研究가 나왔다.¹⁰⁾ 이의 장점은 同聲符의 동원자를 聲符의 音義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分을 성부로 취한 頒, 貧, 芬, 吩, 粉 등은 ‘나누다’¹¹⁾라는 義가 義根¹²⁾이기 때문에 字(詞)族에 대한 이해가 쉽다. 필자 역시 효과적인 漢字, 漢語教育, 漢語史 연구를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의 동원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票를 성부로 한 형성자는 標, 嬰, 鸚, 嫖, 標, 標, 飄, 飄, 漂, 漂, 飄, 飄, 影, 票, 漂, 瓢, 飄, 飄, 嘯,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標 등이 있다. 이들은 票의 본의 ‘불뚱’으로부터 인신된 ①가볍다, 뜨다. ②빠르다, 급하다, 날다. ③회오리바람, 들어 올리다 등의 意義群을 형성하기도 하고, ④표식, 표출하다. ⑤황백색. ⑥끝. ⑦강취 강탈. ⑧성한모양, 건강하다, 왕성하다의 意義群을 형성하기도 한다. 본고는 票를 聲符로 한 형성자 중 同源字만을 계련하고 考釋하고자 한다. 아울러 票의 字源과 字形變化도 함께 考究하되, 지면상 票의 引伸義 ①, ②, ③까지의 同源字만을 考釋대상으로 삼고 이하는 別考를 기다린다.¹³⁾

를 만들어 내는 것을 孳乳라고 하고, 乚을 肱으로 쓰는 것처럼 단지 문자의 필획을 고치거나, 방언의 音變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 지는 것을 變易이라고 한다. 孳乳는 詞의 파생이 文字上에 반영된 것으로 이는 문자 현상이고 언어현상이다. 孳乳는 동원자를 생산한다.(王寧, 앞의 책, 50쪽, 참조.)

10)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실은 필자도 이런 字(詞)族연구에 관심이 있어 이미 ‘票를 성부로 한 동원자 考釋에 대한 초고를 써놓고 자료보충 차 1월 북경에 들렀다가 殷寄明의 《漢語同源字詞叢考》를 구입했다.

11) 殷寄明, 앞의 책, 44쪽 참조.

12) 李玉은 “동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意義의 핵심을 義根(“義根”即同源字共有的意義核心)라고 하였다.(李玉, <同源字拾考>, 《桂林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21卷, 第4期(總第72期), 2007. 12, 77쪽.

13) 王力은 《同源字典》 宵韻 幫紐에서 票의 考釋 대상 동원자의 일부인 飜, 森, 票, 飄, 漂, 標 등을 이미 系聯하였다.(王力, 앞의 책, 223쪽, 225쪽, 245쪽 참조.) 하지만 票는 字形演變, 本義 등 왕력이 빠뜨리거나, 고석이 미진한 것, 來源의 각도가 다른 것 등을 보충하고, 系聯 역시 票를 성부로 한 동원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 각도를 달리한다.

2. 票의 字源과 同源字

형체관계로 보면 同源字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¹⁴⁾ 첫째 倫과 類, 關과 彎, 리과 曳같은 형체가 무관한 同源字, 둘째 ‘侖’을 성부로 한 倫, 輪, 論, 淪 등과 같은 同聲符의 同源字로, 이들은 형성자인데 孳乳되어 글자를 만들 때 同聲符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형의 일부가 같다. 裘錫圭는 同聲符의 형성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때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온 친속사(同源詞)의 형성자는 모두 동일한 글자가 聲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성방은 앞 장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모두 이들 동성부의 형성자 무리들의 뜻을 연구하고 특히 그들이 대표하는 詞의 語源을 연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有時候, 一些表示同出一源的親屬詞(即同源詞)的形聲字, 都把同一個字作聲旁. 這種聲旁, 不管它是不是上節所說的那種有義的聲旁, 都是研究這組形聲字的意義, 特別是它們所代表的詞的語源的重要線索)¹⁵⁾

기본적으로 동원자는 獨體와 合體를, 會意와 形聲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형성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聲符를 공유한 형성자들은 同源字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票를 聲符로 한 一群의 형성자들이 그런 경우이다.

2.1. 票의 字源과 字形變化

2.1.1. 票의 字源

𧇧(票) : 《說文·火部》에 “𧇧(票)는 불뚝이다. 火와 𧇧로 이루어졌고, 𧇧

14) 王寧, 앞의 책, 51쪽 참조.

15)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년, 177쪽.

와 동의이다. 반절은 票(方昭切)이다.(𩇛, 火飛也. 從火囙, 與𩇛同意, 方昭切)”¹⁶⁾라고 하였다. 즉 草木에 불을 지피면 불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불뚱’이 票의 본의이다.¹⁷⁾

𩇛의 構造를 허신이 ‘火와 囙로 이루어졌고 그 뜻은 𩇛와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 段玉裁는 《說文解字注·火部》에서 “마땅히 火와 𩇛로 이루어졌고, 囙는 𩇛의 생략된 모습이다. 囙의 하부 ‘一’은 升이 생략된 것이다. 𩇛는 곧 𩇛의 或體로, 𩇛는 ‘높이 올라가다’란 뜻을 나타내니, 𩇛의 본의 ‘불뚱’ 역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의라고 한 것이다.(按當作從火𩇛省, 蓋省升爲一也. 𩇛卽𩇛之或體, 𩇛訓升高, 火飛亦升高. 故爲同意)”¹⁸⁾라고 하였다. 즉, 단옥재는 허신의 ‘火 + 囙 = 𩇛’란 구조분석을 부정하고, ‘火 + 𩇛 = 𩇛’이며, 𩇛는 𩇛의 或體인데,¹⁹⁾ 𩇛에서는 자형이 생략되었다고 하였다. 𩇛가 ‘높이 올리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𩇛(票)가 ‘불뚱(불뚱은 높이 위로 올라간다.)’²⁰⁾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단옥재의 분석이 정확하다.

邵瑛은 《羣經正字》에서 “𩇛는 隸變에 票로 쓰는데, 불뚱을 나타내던 𩇛는 俗에서는 ‘火’를 덧붙여 𩇛로 쓰기도 한다.(隸變作票, 而火飛之𩇛, 俗又加火旁作𩇛)”²¹⁾라고 하였다. 즉, 票는 𩇛의 隸變體이고, 𩇛는 俗體라는 것이다. 단옥

16) 許慎, 《說文解字》, 卷十, 北京: 中華書局, 1992, 209쪽. 小篆 자형 𩇛를 보면 許慎의 분석 중 一 혹은 升의 생략체로 보이는 ‘一’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

17) 《史記·禮書》에 “초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가죽과 코뿔소 가죽으로 갑옷을 만드는데 견고하기가 금속과 같고...그 가볍고, 맵시 있고, 빠르기가 마치 불뚱(바람) 같았다.(楚人鯨革犀兕 所以爲甲堅如金石...輕利剽邁, 卒如標風)”의 ‘輕利剽邁’에 대한 張守節 正義에 “剽는 음이 票(匹妙反)이고 邁은 음이 ‘速’이다. 剽邁은 ‘빠르다’란 뜻이다.(匹妙反 下音速 輕利 剽邁, 疾也)”라고 하고, ‘卒如標風’은 “標의 음은 票(必遙反)이다. 標는 ‘바람이 빠르다’란 뜻이다.(標, 必遙反, 標風疾也)”(司馬遷 撰, 《史記》(二十五史之一), 卷二十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154쪽)라고 하였다. 불뚱이 날아다님으로부터 빠르다. 바람이 빠르다 등으로 인신되었다.

18) 段玉裁, 《說文解字注》, 十篇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484쪽.

19) 𩇛는 𩇛의 或體이다. 《說文·𩇛部》에 “𩇛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𩇛의 의미, 囙이 소리를 나타낸다. 𩇛은 혹은 𩇛를 덧붙여 𩇛로 쓰기도 한다. 반절은 𩇛(七然切)이다.(𩇛, 升高也. 從鼻囙聲. 𩇛𩇛或從巳, 七然切)”(許慎, 앞의 책, 卷三, 59쪽.)라고 하였다.

20) 許慎, 앞의 책, 卷三, 59쪽: 《說文·𩇛部》에 “𩇛은 높이 올리는 것이다. 𩇛의 의미, 囙이 소리를 나타낸다. 𩇛은 혹은 𩇛를 덧붙여 𩇛로 쓰기도 한다. 반절은 𩇛(七然切)이다.(𩇛, 升高也. 從鼻囙聲. 𩇛𩇛或從巳, 七然切)”라고 하였다.

재는 《說文解字注·火部》에서 “燧와 標는 音義가 모두 동일하다.(此與標音義皆同)”²²⁾라고 하였다. 標는 《說文·火部》에 “불뚝이다. 火가 의미를 쫓가 소리를 나타낸다. 標처럼 읽는다. 반절은 표(甫遙切)이다.(標, 火飛也. 從火票聲, 讀若標. 甫遙切)”²³⁾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燧(票)의 본의는 ‘불뚝’이고, 本字는 燧이며, 俗體는 標이다. 票는 燧의 隸變體로 小篆은 票로 썼다. 이를 隸定하면 ‘燧’이다.

燧(票)는 갑골문이나 금문에 보이지 않고, 《說文》 이상의 별다른 考釋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字形變化와 본의에 대한 고증이 쉽지 않다. 하지만 小篆의 구조를 보면 燧는 爨과 造字原理, 字義, 構件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燧의 자형구조를 통해서 고증해볼 수 있다. 爨은 《說文·爨部》에 “제나라에서는 ‘炊爨(불 때다.)’라고 하였다. 臼은 시루를 쥐고 있는 모습을, 冂은 부엌 아궁이를, 井은 아궁이에 나무 무더기를 밀어 넣어 불을 지피는 것(두 손을 이용하여)을 나타낸다. 반절은 찬(七亂切)이다.(爨, 齊謂之炊爨, 臼象持甌, 冂爲竈口, 井推林內火, 七亂切)”²⁴⁾라고 하였다. 臼²⁵⁾가 시루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였으니, 函의 안쪽 凵는 시루(숯)이다. 爨은 上下結構로 이루어졌다. 맨 위 部件 函(《說文》에 보이지 않음)의 臼는 두 손을, 안쪽의 凵²⁶⁾는 시루(숯)로,

21)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 939쪽 재인용. 단옥재는 《段玉裁注·火部》에서 “음운은 二部に 속한다. 마땅히 標(必遙切)로 읽어야 한다. 생각건대 2部の 票, 標 두 자는 同音同義이다. 標는 票가 聲符이다. 아마 票가 正字, 標는 俗字인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集韻, 類篇, 韻會 모두 이들 두 자를 합해서 하나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李善과 玄應이 인용한 바에는 모두 標자가 있고, 玉篇에도 또한 이들 두 자를 따로 따로 나누어 실어 아직 하나로 합병시키지 않았다.(二部. 當必遙切. 按同部票標二字同音同義. 標卽票聲. 似票正標俗. 故集韻類篇韻會皆合二爲一. 然李善, 玄應所引皆有標字, 玉篇亦分載. 未容改併)”(段玉裁, 十篇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481쪽.)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票와 標가 正字와 俗字관계의 同字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지만 同音同義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22) 段玉裁, 앞의 책, 十篇上, 484쪽.

23) 許慎, 앞의 책, 卷十, 208쪽.

24) 許慎, 앞의 책, 卷三, 60쪽.

25) 臼은 《說文·臼部》에 “손을 맞잡은 것이다. 凵와 凵로 이루어졌다. 반절은 곡(居玉切)이다.(叉手也. 從凵, 凵, 居玉切)”(許慎, 앞의 책, 卷三, 60쪽.)라고 하였다. 凵와 凵는 손을 나타낸다.

26) 사람의 정수리 즉, 天窓을 나타내는 凵(정수리 신)과 다르다.

손으로 술을 들거나 조작함을 나타낸다. 그 아래 ‘冫’은 冫으로 아궁이를, 林은 火木을, 맨 아래 夾은 冫과 火가 隸變에 의해 하나로 接合된 譌變體이다. 夾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升) 불(火)을 지킴을 나타낸다. 爨이 火木을 상징하는 林이나 아궁이를 나타내는 冫(冫)만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票의 본의는 술에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²⁷⁾ 불을 때는 것을 그려서 ‘불꽃이 일어남(불뚝)’을 나타내었다. 불꽃은 가볍고 빠르며 경쾌하다. 이로부터 ‘票’가 聲符인 글자들 중 가볍다, 날다, 급하다, 경쾌하다, 뜨다, 회오리바람 등의 引伸義를 갖게 되었다.

2.1.2. 票의 字形變化

〈票의 字形表〉

字體	字形 ²⁸⁾			
	㉑	㉒	㉓	㉔
小篆	𩇛(說文·卷十)			
古隸	𩇛(老子乙前二二)			
今隸	𩇛(漢印徵)	𩇛(居延新簡)	𩇛(居延新簡)	𩇛(郝閣頌)
	㉑	㉒		
	𩇛(熹·詩·擗兮)	𩇛(漢印徵)		

票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소전 𩇛(爨)에서 今隸 票(票)까지의

27) 許慎, 앞의 책, 卷三, 59쪽: 票와 爨의 공통 部件 冫는 《說文·冫部》에서 “冫는 함께 드는 것이다. 冫와 冫로 이루어졌다. 독음은 余처럼 읽는다. 반절은 여(以諸切)이다.(冫, 共舉也. 從冫從升, 讀若余, 以諸切)”라고 하였다. 冫와 冫은 똑같이 두 손을 그린 것인데 상부의 두 손은 冫와 같은 모양으로 하부의 두 손은 冫와 같은 모양으로 演變되었다. 두 손을 아래위로 그려 함께, 협력하다, 돕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28) 자형재목의 典據는 다음과 같다. 小篆: 許慎, 앞의 책, 卷十, 火部, 209쪽. 古隸: 方述鑫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卷一〇, 一八,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711쪽. 今隸: ㉑, ㉒, 方述鑫等編 앞의 책, 卷一〇, 一八, 711쪽. ㉓, ㉔, 方述鑫等編, 앞의 책, 卷一一, 一一, 票의 部件, 792쪽. ㉑, 韓延錫, 「附錄 字形表」, 《居延新簡文字研究》(博士學位論文北京師範大學), 1997, 票의 部件, 129쪽. ㉒ 韓延錫, 앞의 책, 票의 部件, 195쪽.

字形變化는 그 部件을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譌變되었다. 우선 상부 𠄎의 두 손(扌: 함께 협력함을 나타냄)과 그 안의 술(𠄎: 函)이 𠄎로, 중간의 ‘一’²⁹⁾는 그대로 두고, 하부의 火는 卍의 變體인 ‘一’과 함께 전혀 엉뚱한 ‘示’의 형태로 譌變되었다. 즉 ‘𠄎’가 隸變에 의해 ‘票’로 연변된 것이다. 위 소전과 古隸까지는 상부 𠄎, 중간 ‘一’, 하부 火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今隸 ㉔에서 하부가 示의 모습으로, ㉕이하부터 상부는 𠄎로, 하부는 示로 완전히 譌變된다.

《集韻·宵韻》에 “𠄎, 𠄎, 𠄎는 불뚱이다. 𠄎는 혹 𠄎, 𠄎로 쓰기도 한다. (𠄎, 𠄎, 𠄎, 火飛也. 或作 𠄎, 𠄎)”³⁰⁾라고 하였다. 즉 𠄎가 正字인데, 𠄎, 𠄎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集韻·宵韻》에 “𠄎, 𠄎은 설문에 불뚱이라고 하였다. 혹 생략하여 𠄎로 쓰기도 한다. (𠄎, 𠄎, 說文火飛也. 或省)”³¹⁾라고 하였다. 《集韻》의 주장을 보면 𠄎, 𠄎, 𠄎가 同字인 셈이다. 《集韻》은 飄, 標, 剽 등 다른 자의 部件으로 쓰일 때는 모두 ‘票’의 형태로 썼는데, 獨用은 𠄎로 썼다. 즉 아직 獨用時에는 자형 票로 쓰지 않고 있다. 이는 학자들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字形 票의 譌變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集韻·宵韻》에 소개된 자형 ‘𠄎’는 𠄎와 비교하여 부건 ‘一’를 ‘一’으로 썼다. 이는 古隸 ‘𠄎’(老子乙前二二)’를 반영한 것이다. ‘𠄎’는 部件 卍을 소전이나 기타 예서에서 ‘一’의 형태로 썼는데, ‘一’처럼 썼다. 漢代의 居延新簡, 漢印徵, 熹平石經 등은 이미 𠄎, 𠄎, 𠄎 등으로 써 부건 函, 卍, 火가 𠄎와 示로 譌變되어 筆意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소전 𠄎가 正變을 하였을 때의 자형은 𠄎이다. 𠄎가 票로 譌變되는 과도기적 자형이 𠄎, 𠄎, 𠄎이다. 𠄎, 𠄎, 𠄎, 票는 同字 異寫字인 셈이다.

29) 두 손을 나타낸 卍(𠄎)이었으나 이미 소전에서 一로 譌變되었다.

30) 丁度 等編, 《宋刻集韻》, 卷三, 平聲三, 北京: 中華書局, 1989, 53쪽.

31)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2쪽.

아래 系聯된 同源字는 모두 ‘票’가 根源聲符인 字符들로 이루어졌다. 票가 根源聲符인 漂, 飄, 縹, 縹, 標, 標, 標, 標, 標는 上古音이 宵韻 滂紐이고, 瓢, 藻, 標, 縹는 上古音이 宵韻 並紐³⁶⁾이며, 標, 標는 上古音이 宵韻 幫紐³⁷⁾이다. 이들은 疊韻(宵韻)이며, 雙聲 혹은 旁紐이다. 즉 音韻이 相同 혹은 相近하여 同源자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것으로 아래 系聯 中の 同源자의 聲音관계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³⁸⁾ 아래 ‘票’로부터 得聲한 형성자의 字(詞)族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2.2. 票를 根源聲符로 한 同源字 考釋

① 가볍다, 뜨다.

票(票)의 本義 ‘불뚱’은 불이 탈 때 공중으로 가볍게 날아간다. 이로부터 날다, 가볍다, 빠르다, 회오리바람, 뜨다 등이 引伸되었다. 불뚱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나는 것이요, 나는 것이 가벼운 것이고, 뜨는 것이며, 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引伸義가 생겼다. 또, 빠르기 때문에 회오리바람이란 人신의가 생겼다. 옛 사람들은 회오리바람을 빠르고 위로 날아오르는 바람으로 여겼다.³⁹⁾

票 : 《漢書·禮樂志》에 “票然逝, 旗透蛇(가볍게 올려 저 펼럭인다.)”의 顏師古 注에 “票然是 ‘가볍게 들어 올린다’이다.(票然, 輕舉意也)”⁴⁰⁾라고 하였다. 票의 本의 불뚱에서 ‘가볍게 들어 올린다.’로 引伸되었다.

36) 李珍華, 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264쪽, 279쪽 참조.

37) 李珍華, 周長楫, 앞의 책, 263쪽 참조.

38) 根源聲符인 票의 上古音은 《漢字古今音表》에서 찾을 수 없었다. 王力은 票(票)가 宵韻, 幫紐라고 하였다.(王力, 앞의 책, 223쪽 참조.). 票가 성부인 위 同源자들의 同源의 音同, 音近 기준은 王力의 《同源字典》 12-20쪽에 제시된 韻部와 聲紐의 音轉規則을 따른다. 아래 분석대상인 모든 同源자의 상고음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모두 票를 聲符로 하기 때문에 상고음이 相同 혹은 相近할 것으로 인정하고 분석한다.

39) 票(票)의 引伸義에 대해 段玉裁는 《說文解字注·火部》에서 “票는 人신되어 무릇 가볍고 예리함을 가리킨다.(票, 引伸爲凡輕銳之稱)”(段玉裁, 앞의 책, 十篇上, 484쪽.)라고 하였다.

40)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二十五史之一), 卷二十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107쪽.

票(票) : 《集韻·宵韻》 “票는 ‘가볍다’이다.(票, 輕脆也)”⁴¹⁾라고 하였다.

影 : 《集韻·宵韻》에 “影는 한편으로는 회오리바람같이 가벼운 것이다.(影, 一曰影搖輕便也)”⁴²⁾라고 하였다.

颯 : 《說文·走部》에 “颯는 가볍게 가는 것이다. 走가 의미를 票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질은 표(撫招切)이다.(颯, 輕行也. 從走票聲, 撫招切)”⁴³⁾라고 하였다. 《集韻·宵韻》에 “颯는 說文에 가볍게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혹 ‘走’를 ‘足’으로 쓰기도 한다.(颯, 說文, 輕行也, 或從足)”⁴⁴⁾라고 하였다. 走와 足이 類似 義符이기 때문에 颯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蹻 : 《集韻·笑韻》에 “蹻는 가볍게 가는 것이다.(蹻, 行輕也)”⁴⁵⁾라고 하였다.

鰾 : 《篇海類編·鱗介類·魚部》에 “鰾는 물고기 부레로 이로써 아교를 만들 수 있다.(鰾, 魚鰾, 可爲膠)”라고 하였고,⁴⁶⁾ 《玉篇·魚部》에도 “鰾는 물고기 부레로 이로써 아교를 만들 수 있다.(鰾, 魚鰾, 可爲膠)”⁴⁷⁾라고 하고, 《廣韻·小韻》에도 “鰾는 물고기 부레로 이로써 아교를 만들 수 있다.(鰾, 魚鰾, 可作膠)”⁴⁸⁾라고 하였다. 물고기의 부레는 물고기를 물에 뜨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뜨다, 가볍다가 義根이다.

諛 : 《集韻·宵韻》에 “諛는 말이 가벼운 것이다.(諛, 言輕也)”⁴⁹⁾라고 하였다.

醪 : 《廣韻·小韻》에 “醪는 맑은 술(醪, 淸酒)”이라 하고, 《集韻·小韻》에는 “醪는 술이 맑은 것을 이른다.(醪, 淸酒謂之醪)”⁵⁰⁾라고 하였다. 즉 막걸리처럼 짙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술이 아니고 맑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술을 가

41)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2쪽.

42)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43) 許慎, 앞의 책, 卷二, 36쪽.

44)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45)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八, 去聲下, 166쪽.

46)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1956쪽 재인용.

47)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卷二十四, 北京: 中華書局, 1987, 116쪽.

48) 北京市新華書店, 《宋本廣韻》(張氏澤存堂本影印), 卷三, 上聲,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2, 278쪽.

49)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50)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六, 上聲下, 114쪽.

리킨다.

標：《管子·侈靡》“若夫教者，標然若秋雲之遠，動人心之悲(저 教化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볍게 높이 들어 올려 저, 가을구름이 멀고 높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한다.)”의 戴望 注에 “標는 높이 들어 올린 모양이다.(標, 高舉貌, 秋雲悽慘)”⁵¹⁾라고 하였다.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날다, 가볍다와 상관있다. 또 標는 ‘가볍게 띄어’란 뜻으로도 쓰인다. 《後漢書·張衡傳》에 “깊은 동굴을 따라 등등 떠서 깊은 연못으로 통하네(趨谿嘯之洞穴兮, 標通淵之琳琳)”⁵²⁾라고 하여 가볍게 떠감을 나타내었다. 《漢詩外傳》(卷二)에 “태만하고 가벼이 自暴自棄하면 재앙으로서 보답한다.(怠慢標棄, 則慰之以禍災)”⁵³⁾라고 하여 ‘가볍다’로 쓰였다. 즉 태만은 마음을 가벼이 하는 것이다.

藻：《廣韻·宵韻》에 “藻는 방언에 이르기를 ‘江東에서는 부평초를 藻라고 한다.’라고 하였다.(藻, 方言云‘江東謂浮萍爲藻’)”⁵⁴⁾라고 하였다. 즉, ‘藻’는 艸가 義符이고 漂가 聲符인 식물 ‘부평초’를 나타낸다. 그런데 부평초를 나타내는 글자의 聲符가 漂(票)인 것은 부평초는 물위에 떠서 자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瓢：부평초는 ‘瓢’로도 쓴다. 《集韻·宵韻》에 “藻와 瓢는 부평초이다. 혹은 漂를 瓢로 쓰기도 한다.(藻, 瓢, 萍也. 或從瓢)”⁵⁵⁾라고 하였다. 역시 根源聲符가 ‘票’이다.

瓢：《說文·瓜部》에 “瓢는 ‘바가지’이다. 瓠의 생략형인 瓜가 의미를, 戛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杓(符宵切)이다.(瓢, 蠡也. 瓠省, 戛聲, 符宵切)”⁵⁶⁾라고 하였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瓜部》에 “蠡라는 것은 바가지이다. 설문

51) 戴望 著, 《管子校正》(諸子集成之五), 卷十二, 上海: 上海書店, 1994, 193쪽.

52) 范曄, 《後漢書》, (二十五史之二), 卷八十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212쪽.

53)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816쪽 재인용. 《荀子·修身》“태만하고 가벼이 自暴自棄하면 재앙으로서 보답한다.(怠慢標棄, 則炤之以禍災)”의 楊倞 注에 “標, 輕也. 謂自輕其身也”(楊倞 注, 《荀子集解》(諸子集成之二), 卷一, 上海: 上海書店, 1994, 15쪽)라고 하였다. 漢詩外傳과 동일한 문장인데 標를 標로 썼다.

54)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0쪽.

55)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56) 許慎, 앞의 책, 卷七, 150쪽.

豆部에 이르길 ‘蠶’는 ‘바가지이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박을 갈라서 둘로 만든 것을 ‘瓢’라고 한다.(蠶者, 蠶也. 豆部曰, 蠶者, 蠶也. 以一瓠剗爲二曰瓢)⁵⁷⁾고 하였다. 표주박은 ‘박’을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박을 갈라 속을 파내면 가벼워지고, 바가지는 물에 떠서 가벼운 느낌을 준다.

嫖 : 《說文·女部》에 “嫖는 ‘가볍다’이다. 女가 의미를 뺏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匹招切)이다.(嫖, 輕也. 從女夌聲, 匹招切)⁵⁸⁾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女部》에서 “人部の ‘漂’와 音과 義가 모두 같다. 한나라의 霍去病이 ‘票姚校尉’가 되었는데 ‘票姚’는 ‘飄搖’라는 것과 같아 가볍고 빠름을 가리킨다.(與人部漂音義皆同, 漢霍去病票姚校尉, 票姚謂如飄搖, 謂輕疾也)⁵⁹⁾라고 하고, 《廣韻·宵韻》에 “嫖는 몸이 가벼운 모양이다.(嫖, 身輕便兒)⁶⁰⁾라고 하였다. 즉 嫖나 漂는 部件 女와 人이 義符이고 票가 성부인데 이는 사람의 행동이 가볍고 빠른 것을 나타낸다.

漂 : 《說文·水部》에 “漂는 ‘뜨다’이다. 水가 의미를 票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匹消切, 匹妙切)이다.(漂, 浮也. 從水票聲, 匹消切, 又匹妙切)⁶¹⁾라고 하였다.

漚 : 《集韻·宵韻》에 “漂는 반절은 표(紕招切)이다. 說文에 ‘뜨다,’ ‘물 속’이라고 하였는데, 혹 ‘漚’로 쓰기도 한다.(紕招切, 說文浮也. 水中也. 或作漚)⁶²⁾라고 하였다. 즉, 漚는 漂의 或體이다.

縹 : 《說文·糸部》에 “縹는 청백색 비단이다. 糸가 의미를, 票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敷沼切)이다.(縹, 帛青白色也. 從糸票聲, 敷沼切)⁶³⁾라고 하였다. 縹의 본의는 청백색의 비단인데, 이 비단은 가벼운, 옅은 색의 비단을 나타낸다.⁶⁴⁾ 《漢書·賈誼傳》 “鳳縹縹其高逝兮(봉황이 가볍게 높이 날아가

57) 段玉裁, 앞의 책, 七篇, 337쪽.

58) 許慎, 앞의 책, 卷十二, 264쪽.

59) 段玉裁, 앞의 책, 十二篇, 624쪽. 段玉裁는 ‘票姚校尉’의 票를 嫖와 同字로 인식하고 있다.

60)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61) 許慎, 앞의 책, 卷十一, 230쪽.

62)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63)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73쪽.

64) 段玉裁, 앞의 책, 卷十三, 649쪽: “釋名에 이르길 縹는 漂와 같다. 漂는 옅은 청색이다.(釋

네)의 顏師古 注에 “縹縹는 가벼운 모양이다. 음은 ‘표’이다(縹縹, 輕舉貌. 音匹遙反)”라고 하였다.⁶⁵⁾

飄 : 《廣韻·宵韻》에 “飄는 또 조금 가벼운 것이다. 혹 颯로 쓰기도 한다. (飄, 又小輕也, 或作颯)”⁶⁶⁾라고 하였다. 《漢書·地理志》 “自全晉時已患其飄悍(全晉 때부터 이미 그 급하고 포악함을 걱정하였다.)”의 顏師古 注에 “飄는 ‘급하다, 가볍다’이다.(飄, 急也, 輕也)”⁶⁷⁾라고 하였다.

標 : 《說文·人部》에 “標는 ‘가볍다’이다. 人의 의미를 票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匹妙切)이다.(標, 輕也, 從人票聲, 匹妙切)”⁶⁸⁾라고 하였다. 단옥재 《說文解字注·人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方言에 이르길 凡, 標는 ‘가볍다’이다. 楚 땅에서는 무릇 서로 경박한 것을 혹 凡이라고도, 혹 標라고도 한다. 班固의 부에 이르길, ‘비록 가볍고 빠르다 할지라도’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옛날에는 혹 飄를 가차하여 가볍다는 뜻으로 썼다. 標는 또 한 嫖로 쓰기도 한다. 한나라의 霍去病을 ‘嫖姚校尉’라고 쓴 것이 이것이다(方言曰 凡標, 輕也. 楚凡相輕薄或謂之凡, 或謂之標也. 班固賦曰, 雖輕迅與標狡. 按古或假飄爲之. 標亦作嫖. 霍嫖姚是也)⁶⁹⁾

《廣韻·宵韻》에는 “標는 ‘가볍다’이다.(標, 輕也)”⁷⁰⁾라고 하였다. 王力은 “생각건대 ‘嫖와 標’는 실은 동일한 단어이다.(按嫖, 標實同一詞)”⁷¹⁾라고 하였다.

② 빠르다, 급하다, 날다.

驃 : 《說文·馬部》 “驃는 누런 말에 백색이 돋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으로는 흰 털 꼬리를 가리킨다고 한다. 馬가 의미를 票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名曰 縹猶縹, 縹, 淺青色也)”라고 하였다.

65) 班固 撰, 앞의 책, 卷四八, 210쪽.

66)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0쪽.

67) 班固 撰, 앞의 책, 卷二十八, 159쪽.

68) 許慎, 앞의 책, 卷八, 166쪽.

69) 段玉裁, 앞의 책, 八篇上, 379쪽.

70)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71) 王力, 앞의 책, 224쪽.

표(吡召切)이다.(驃, 黃馬發白色, 一曰白髦尾也. 從馬𩇑聲, 吡召切)⁷²⁾라고 하였는데, 인신해서 말이 빨리 달림을 나타낸다. 《集韻·笑韻》에 “驃는 말이 빨리 가는 모양이다.(驃, 馬行疾兒)”⁷³⁾라고 하였다. 본의는 누런 바탕에 백색이 돋는 말을 가리켰으나 말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빨리 달림’으로 인신되었다.

標 : 《廣韻·宵韻》에 “標는 ‘급하다’이다.(標, 急也)”⁷⁴⁾라고 하였다. 마음이 급함을 나타낸다. 《集韻·小韻》에 “標는 설문에서 ‘빠르다’라고 하였다.(標, 說文疾也)”⁷⁵⁾고 하였다. 《集韻·宵韻》에 “標는 광아에서 ‘급하다’이다.(標, 廣雅急也)”⁷⁶⁾라고 하였다.

飄 : 晉 木華의 《海賦》에 “휘날리는 모래가 돌맹이에 부딪치고, 휩쓰는 돌풍이 물가 과도를 일렁이게 하네.(飄沙礧石, 蕩颿島濱)”⁷⁷⁾라고 하여 ‘휘날리다’로 썼다.

飄 : 《廣韻·宵韻》 “飄는 높이 나는 것이다.(飄, 高飛)”⁷⁸⁾라고 하였다. 《集韻·宵韻》 “飄는 가볍게 나는 것이다.(飄, 飄影飛也)”⁷⁹⁾라고 하였다.

鷗 : 《廣韻·宵韻》 “鷗는 새가 날다’이다.(鷗, 鳥飛)”⁸⁰⁾라고 하였다. 《集韻·宵韻》 “鷗鷗는 가볍게 나는 모양이다.(鷗鷗, 飛輕貌)”⁸¹⁾라고 하였다. 《玉篇·鳥部》에 “鷗는 새가 이동하는 것이다. 반절은 표(匹沼切)이다.(鷗, 鳥變. 匹沼切)”⁸²⁾라고 하였다.

嘌 : 《集韻·宵韻》 “嘌는 빠르다, 소리이다.(嘌, 疾也, 聲也)”⁸³⁾라고 하였다. 《集韻·笑韻》 “嘌는 수레가 빨리 달려 질주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嘌,

72) 許慎, 앞의 책, 卷十, 199쪽.

73)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八, 去聲下, 166쪽.

74)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75)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六, 上聲下, 114쪽.

76)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77)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360쪽 재인용.

78)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79)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80)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81)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 53쪽.

82) 顧野王, 앞의 책, 卷二十四, 鳥部, 114쪽.

83)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2쪽.

車行疾, 無節也)⁸⁴⁾라고 하였다. <詩·檜風·匪風> “저 수레 빨리 달려 멈추지 않네(匪車嘒兮)”라고 하였다.⁸⁵⁾

嘒(嘒) : <集韻·宵韻> “嘒는 실문에 ‘빠르다’라고 하고, 詩, 匪風의 ‘匪車嘒兮(저 수레 멈출 수 없이 빠르네)’를 인용하였다. 隸變에 ‘嘒’로 쓴다.(嘒, 說文疾也. 引詩匪車嘒兮, 隸作嘒)”⁸⁶⁾라고 하였다.

票 : <集韻·笑韻> “票는 굳세고 빠른 모양이다.(票, 勁疾兒)”⁸⁷⁾라고 하였다. <漢書·揚雄傳> “宣觀夫票禽之繼險(다만 저 빠른 짐승이 물을 건너는 것을 보듯)”의 顏師古 注에 “票禽은 가볍고 빠른 짐승이다.(票禽, 輕疾之禽也)”⁸⁸⁾라고 하였다. <漢書·霍去病傳> “爲票姚校尉(票姚校尉가 되었다.)”에 服虔은 “(票姚는) ‘飄搖’로 읽는다.(音飄搖)”고 하였고, 顏師古는 “票姚는 힘있고 빠른 모양이다.(票姚, 勁疾之貌也)”⁸⁹⁾라고 하였다.

③ 회오리바람, 불다, 필력이다, 요동치다.

飄 : <說文·風部> “飄는 회오리바람이다. 風이 의미를 뺏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질은 표(撫招切)이다.(飄, 回風也, 從風票聲, 撫招切)”⁹⁰⁾라고 하였다. <集韻·宵韻> “飄는 실문에 회오리바람이라고 하였다. 혹 焱로도 쓴다.(飄焱, 說文回風也. 或作焱)”⁹¹⁾라고 하였다. <爾雅·釋天>에 “돌개바람을 飄라고 한다.(迴風爲飄)”⁹²⁾라고 하였다. <詩·小雅·何人斯> “其爲飄風(그는 거세게 부는 바람처럼 너무도 갑자기)”의 釋文에 “飄는 음이 ‘표’이고, 義는 빠르게 부는 바람이다.(飄, 避遙反, 疾風也)”⁹³⁾라고 하였고, <詩·檜風·匪風> “匪風飄

84)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八, 去聲下, 166쪽.

85) 阮元 校刻(清), 앞의 책, 卷七, 383쪽.

86)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87) 丁度 等編, 앞의 책, 卷八, 去聲下, 166쪽.

88) 班固 撰, 앞의 책, 卷八七, 329쪽.

89) 班固 撰, 앞의 책, 卷五十五, 232쪽.

90)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84쪽.

91)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3쪽.

92) 郝懿行 撰, <爾雅義疏>(上下), 中四,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754쪽.

93) 阮元 校刻(清),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卷十二, 北京: 中華書局, 1980, 187쪽.

兮(저 도는 바람 불어와)”의 釋文에 “飄의 음은 표(符遙反)이다.(飄, 符遙反)”라고 하고, 孔穎達의 疏는 “회오리바람을 飄라 한다. 爾雅 釋天에서 李巡이 이르기 廻風은 도는 바람이다”라고 하였다.(廻風爲飄, 釋天文, 李巡曰, 廻風旋風也)”⁹⁴⁾고 하였다. 《說文·風部》 “飄는 회오리바람이다. 風이 의미를 襲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撫招切)이다.(飄, 回風也, 從風襲聲, 撫招切)”⁹⁵⁾라고 하였다. 《集韻·宵韻》에 “飄는 說文에 회오리바람이라고 하였다. 飈 飈로도, 飈로도, 飄로도 쓰는데 飈가 보편자형이다.(說文扶搖風也. 或從包, 從勻, 亦作飄 通作飈)”⁹⁶⁾라고 하였다. ‘회오리바람’의 표면적인 義符는 風이다. 飄, 飈, 飈, 飄의 聲符는 飈, 包, 勻, 票이다.

旛 : 《說文·放部》에 “旛는 깃발이 필러이는 것이다. 放가 의미를 夔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표(匹招切)이다.(旛, 旌旗旛絲也. 從放夔聲, 匹招切)”⁹⁷⁾라고 하였다. 王力은 “飈와 旛는 음이 가깝고, 뜻은 같다.(按飈, 旛音近義同)”⁹⁸⁾라고 하여 同源자라고 하였다.⁹⁹⁾

嘍 : 《廣韻·宵韻》 “嘍는 빠르게 부는 모양이다.(嘍, 疾吹之貌)”¹⁰⁰⁾라고 하였다. 즉 입으로 바람을 세고 빠르게 부는 것을 나타낸다.

票 : 《漢書·揚雄前下》 “票崑崙(崑崙을 요동치게 하다.)”의 顏師古주에 “票는 ‘요동치다’란 말과 같다.(票, 猶言搖動也. 音匹昭反)”¹⁰¹⁾라고 하고, 《後漢書·張衡傳》 “去穢累而票輕(무거운 때를 벗겨내니 회오리바람 같이 가볍다.)”의 李賢注에 “票輕은 회오리바람과 같다.(票輕, 猶飄飄也)”¹⁰²⁾라고 하였다.

94) 阮元 校刻(清), 앞의 책, 卷七, 383쪽.

95) 許慎, 앞의 책, 卷十三, 284쪽.

96) 丁度 等編, 앞의 책, 卷三, 平聲三, 52쪽.

97) 許慎, 앞의 책, 卷七, 140쪽.

98) 王力, 앞의 책, 223쪽.

99) 段玉裁는 “絲는 지금의 搖자이다. 小徐는 搖로 썼다. 旛는 지금 飄로 쓴다. 飄와 搖가 쓰이면서 旛와 絲가 폐기되었다.(絲, 今之搖字, 小徐作搖, 旛, 今字作飄, 飄搖行而旛絲廢矣)”(段玉裁, 앞의 책, 七篇, 311쪽.)라고 하였다.

100) 北京市新華書店, 앞의 책, 卷第二, 下平聲, 131쪽.

101) 班固 撰, 앞의 책, 卷八十七, 330쪽.

102) 范曄, 李賢 注, 《後漢書》, (二十五史之一), 卷八十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211쪽.

漂：《詩·鄭風·蓍兮》“風其漂女(바람이 장차 너에게 불어 닥칠 텐데)”의 毛傳에 “漂는 불다와 같다(漂, 猶吹也)”라고 하였다. 《漢書·中山靖王傳》“夫衆煦漂山(저 무리들이 산을 불어 움직이게 하고)”의 顏師古注에 “應劭가 이르길 煦는 ‘불다’라고 하였다. 漂는 ‘움직이다’이고, 煦는 음이 후(許句反, 又音許于反)이며, 漂는 음이 표(匹遙反)이다.(應劭曰, 煦, 吹煦也. 師古曰, 漂, 動也. 煦, 音許句反, 又音許于反, 漂音匹遙反)”¹⁰³⁾라고 하였다.

3. 結語

詞義의 訓釋에 清代 이전까지만 해도 ‘以形求義’라는 훈고방법을 주로 사용하다가, 清代에 이르러 ‘因聲求義’라는 훈고방법을 이용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을 내었다. 因聲求義는 한자의 聲音을 실마리로 詞義를 규명하는 훈고방법으로 한자의 聲旁은 단순히 음만을 표시한다는 초기 훈고학자들의 인식을 탈피한 것이었다. 聲音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宋代의 右文說을 계기로, 黃承吉, 戴震, 段玉裁 등의 청대 훈고학자와 근세의 沈兼士, 章炳麟, 黃侃으로 내려오면서 聲音을 이용한 훈고뿐만이 아니라 한어의 詞族 즉 同源字(詞)의 연구에까지 발전하였고, 현대의 王力에 이르러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王力은 西歐語뿐만이 아니라, 漢語에도 滋生詞가 있다고 한다. 그는 한자는 單音節이기 때문에 漢語滋生詞는 음절의 변화, 혹은 聲調의 변화, 혹은 자형의 변화로 滋生詞를 파생시키는데, 滋生詞와 原始詞는 동일한 詞類로 동원자일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顏과 額, 坐와 座, 疏, 梳 등이 그것이라고 한다.) 王力の 《同源字典》은 자형과 상관없이 동원자를 系聯하고 考釋하였다. 예컨대 개, 호랑이, 말, 양의 새끼를 나타내는 狗, 狗, 駒, 羔를 한 組로 系聯하고 考釋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동원자의 系聯과 考釋을 同聲符의 형성자들만을 대상으로

103) 班固 撰, 앞의 책, 卷五十二, 227쪽.

藻.....등이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들은 音同, 音近義通의 同源字이다. 이들 동원자의 특징은 모두 동일한 聲符(票)를 소유한 형성자들이다. 이렇게 동일한 聲符를 소유한 동원자의 성부는 동원자의 詞源을 연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 參考文獻 >

-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戴望 著, 《管子校正》(諸子集成之五), 上海: 上海書店, 1994.
- 杜恒聯, 李開, <形聲字與聲符意義關係的考察>, 《學感學院學報》 第26卷, 第5期
2006. 9.
-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二十五史之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孟蓬生, 《上古漢語同源詞語音關係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 方述鑫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 范曄, 《後漢書》(二十五史之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北京市新華書店, 《宋本廣韻》(張氏澤存堂本影印),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2.
- 司馬遷 撰, 《史記》(二十五史之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阮元 校刻(清),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楊倞 注, 《荀子集解》(諸子集成之二), 上海: 上海書店, 1994.
- 楊曉宇, <聲符性質不同的三種形聲字>,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寧夏 銀川:
第29卷 第1期, 2007. 1.
- 王寧, 《訓詁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
- 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 劉師培, 《左龔集》(1-8卷), 戊辰三月, 銅山 張伯英署, 北京 隆福寺 脩綆堂藏板.
- 李玉, <同源字拾零>, 《桂林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1卷, 第4期(總第72期), 2007.
12.
- 李珍華, 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7.
- 丁度 等編, 《宋刻集韻》, 北京: 中華書局, 1989.

- 郝懿行 撰, 《爾雅義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
- 韓延錫, 《延新簡文字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6
- 黃承吉, 《夢陔堂文集》(10卷), 民國二十八年燕京大學圖書館拜行, 鹽城孫氏借得道光二十三年刻本.
-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92.

<Abstract>

Originating from the same origin, the isogenous words in Chinese represent a word family holding the same or similar sounds and meanings. Since these words have the same root, they indicate some notions that are clos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small differences in meanings are depending on how the words are stuck around the root. The original meaning of 𤇀(票) is 'spark.' As spark is going up when on fire, the diversified meanings such as light, to float, fast, to fly, to hurry, tornado, and to hold up had been derived from it. Then, the meanings were expressed by 縹, 嫖, 標, 諲, 漂, 瓢, 飄, 嘯, 旆, 標, 標, 標, 標, 飄, and 藻. Therefore, those letters are the isogenous words that have the same or similar in sound and meaning to their root 票. Their distinctive feature are that they are the letters that are comprised of two parts possessing the same sound part inside the words. The sound parts of the isogenous that possess the same one surely are the crucial clue helpful in researching the etymologies.

Key Words: isogenous words, letter that is comprised of two parts(meaning part, sound part), derivative, spark, root 票, etymolog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9	2010.1.30	2010.2.4	2010.2.8	2010.2.28

